

<영생학>을 실천하면 죽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리시어 죄를 사하시어 중생들을 구원하십니다

<학문>이라는 것은 사물의 실체를 바로 말하고 바로 아는 것인데 세상의 학문은 사물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편 82편 6절에는 사람 자체가 신(神)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신들이니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여기서 지존자 곧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전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것은 학문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은 원자 하나 하나가 모여서 물질을 형성하고 있고 각각의 원자 속에는 핵이 있고 또 핵 속에는 중성자가 있습니다. 그 중성자의 빛은 태양 빛보다도 몇 억 배 빠른 빛이요, 투과력 또한 무한대입니다. 그런데 이 중성자의 물질이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 또한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1986년도에 콜롬비아 대학교 교수 이원용 박사가 서울대학교에 와서 중성자의 빛에 관해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중성자의 빛은 백억 광년의 남의 두께를 투과하고 지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그의 말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성자의 빛은 하나님의 신입니다. 그러므로 무한대의 영이요, 영원한 영이어서 저항력을 전혀 받지 않는 빛입니다. 남의 두께가 백억 광년의 몇억 배라도 다 투과하고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육천년 전에 하나님이 마귀에게 패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철단과학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영생의 속성이 있는 영이므로 영원무궁토록 저항력을 받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영이 지금부터 육천 년 전에 마귀에게 패했던 것입니다. '마귀에게 패했다'는 것이 성경에 자세히 안 써 있지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정에 통달' 합니다.

하나님의 사정이 격암유류에는 비교적 자세히 써어 있는데 이는 격암유류

이 천손민족인 우리의 조상님이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아담과 해와가 에덴동산에서 살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에덴동산은 바로 하늘나라인 바 그 에덴동산에는 영생의 영이 되는 하나님의 영만 살 수 있지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풀어 볼 때 최초의 아담과 해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됩니다.

천국의 구비조건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찬송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야 천국이니 바로 천국은 하나님이사는 곳이지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어야(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습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요3:5)'고 했습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라'라는 말에는 인간이 분신 하나님이었다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으므로 옛날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녕 태초의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태초에는 아담과 해와의 주체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있었으나 선악과가 되는 마귀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을 마귀 옥에다 가둬 놓고 마귀가 주체 영이 되는 순간 바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들을 속이기 위해서 '흠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역설을 성경에서 놓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인 것을 감추고, 하나님이 되려는 노력을 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마귀는 인간을 흠으로 만들었다고 영터리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가 선지자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 보라. 짝이 없는 말씀이 하나도 없나니라(사34:16)'고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짝이 있습니다. 짝이 없는 말들은 다 마귀의 말입니다. 마귀의 말도 성경에 있다는 것을 이사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던지시 알려 주



구원론을 설하시는 구세주 조희성님

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짝을 맞추고 선별해서 볼 줄 아는 사람이 이 지구 땅에는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세상에 학문도 없지만 종교 또한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 값으로 죽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죽는 원인이 되는 죄의 정체를 모르고, 죽는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니 죽지 않으려야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입니다. 이는 어둠의 신인 마귀가 점령해 온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속담에 '알아야 면장(免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때의 면장은 사골 면장이 아니고 '면할 면'에다 '장례 장'으로써 '알아야 장례를 면한다' 즉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상은 무식한 세상으로서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학문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 자체가 신이요,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성경에는 구구절절이 써어 있는 데도 그것을 모르니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한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자녀니라(신14:1)'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라(요13:2)' 이때 너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여호와의 자녀인데 여호와가 곧 하나님이니 하나님의 자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이 하나님께 없다고 하여 '예수는 독생자' 운운 하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욕심이 임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나니라(약 1:15)'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죄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죄인데 욕심 자체가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나'라는 의식>이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의 뿌리가 '나'라는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주체의식이 원죄가 됩니다. 원죄에서 줄기의 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원죄는 곧 선악과입니다. 이 선악과를 어떤 이는 사과다 복숭아다 하고 다루고 있지만 성경말은 영적(靈的)말이므로 영적 과일이며, 영적 과일이니까 곧 영입니다. 영은 영인데 선악과를 먹고 죽었으니까 죽이는 영, 사망의 속성이 있는 마귀의 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에는 '죄는 마귀종'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나'라는 주체의식>이 원죄가 되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종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더러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것입니다. 주체영이 마귀니까 사람으로 전락한 것인바 주체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면 사람은 하나님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흠으로 사람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상상을 해 보십시오. 흠으로 살이나 눈동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흠으로 머리카락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마음을 흠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아담과 해와를 흠을 빚어서 만들었다면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된 다음 흠을 빚어서 왜 또 다른 아담과 해와를 안 만들었습니까. 흠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다시 흠을 빚어서 똑같은 사람을 만들지 왜 여자더러 그 고통스런 해산의 수고를 시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을 회복하려고 애를 쓰신 것이 성경에 써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어 에덴동산을 다시 세울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없었던 까닭입니다.

하나님은 옛세 동안 일을 하시고 이래 되는 날 쉬셨습니다. 이 구절을 두고 '일요일이 안식일이다',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하고 다루고 있으나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는 '안식일에 참여할 자가 있고 안식일에 참여하지 못할 자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토요일이나 일요일만이 안식일이라면 안식일에 참여 못 할 자가 이 지구 땅 위에 있었습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쉬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옛세 동안 일하시고 이래져 되는 날 쉬신 것은 '하나님의 하루는 천년'이므로 옛세 즉 육천 년간 일하시고 이래 즉 칠천 년대에 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여드레 날에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안식에 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천 년간 고단하게 하신 일, 그것은 이긴자를 키우는 일이었습

니다.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권세'를 이겨서 구세주가 되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 긴 세월을 고단하게 이긴자를 키우신 것입니다.

그러한 영의 사정을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일요일이 안식일이다, 하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을 모신 <이긴자>입니다

이러한 깊은 사정을 이 사람이 논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을 모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고로 이 사람에게는 이슬성신이 내리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아우성치고 모세를 원망할 때에 모세가 기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늘에서 '이슬같은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날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고 해도 욕심이 난 사람들이 많이 퍼가자 만나가 썩어서 못먹게 되었습니다. 그런 만나를 하루만 먹고 산 것이 아니라 사십 년간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낸 구세주였습니다. 모세가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것이다.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으리라(행3:22~23)'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는 구세주로서 모세와 같이 이슬 만나를 내리는 사람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구원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멸망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이슬성신에 대하여는 호세아서 14장 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라고 기록했습니다.

'내가'는 하나님을 말하며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이긴자>입니다. '이긴자에게 하나님이 이슬이 되어 내린다'는 뜻이 됩니다.*

2001년 7월 13일 말씀 중에서

[연재]不老不死 어떻게 가능한가

인간 본성인 영생추구의 뒤틀림 현상



3000공녀와 왜곡된 욕망을 불사른 진시황의 아방궁

더욱 크게는 재산, 명예, 지위, 권력, 성 등 이러한 것들 모두는 자신의 존재의 미와 살고자하는 생의 의지를 더욱 확고하게 다지기 위한 '영생의 대체물'들이라고 볼 수 있겠다. 평범한 사람들은 이러한 영생의 욕구에 대한 왜곡된 대처를 불잡고 생의 유한성을 달래고자 한다. 이것은 진정한 인간의 본성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영생을 이루려 낼 수 없는 능력의 한계를 자각하고, 그에 상응하는 위로와 보상을 받고자 하는 개인적 심리작용에 의한 현상이다.

역사 속에서 명예, 권력, 부를 누리자 들을 살펴보자.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 황제 진시황은 인간 의식 저변에 깔려

있는 행복하고자 하는 본성작용에 의해 동서 길이 990여 미터, 남북 길이 152미터 되는 아방궁을 짓고, 3000공녀를 거느리고 그의 왜곡된 욕망을 불살랐다. 거기에 더해 불로불사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에 의해 동남동녀 500쌍을 동방으로 보내기도 했다.

서양에서는 과대망상이 극도에 달한 로마황제 네로는 자신의 거대한 상(像)을 영원토록 이 세계에 남기고 싶어 했다. 그리하여 조각가 제노도스로 하여금 장장 12년에 걸쳐 32미터 높이의 네로상을 만들게 하였다. 만약 이들이 유한한 삶을 단지 인간의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인락하게 살려고만 했다면 그토록 과대한 행위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음으로 인간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과학적 행위'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인간의 최종의 행복인 자유와 행복과 영생이라는 이상(理想)은 인간의 피 속에 잠재적으로 녹아 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잠재적 이상을 자신이 변화함으로써 실현시키지 못하고 과학적 행위에 의한 창조와 기술개발로 그 틀과구를 찾고 있다.

인간이 낳은 과학적 문명을 자세히 보라! 그것들은 모두 인간이라는 생물학적 인간 속에 내재된 본향에 향수가 작용하여 인간은 빨리 달리기 위해 자동차를 만들고, 날아다녔던 경험의 기억이 비행기를 만들었다. 이제는 영원성과 전지전능성의 뒤틀림 욕구에 의해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까지 만들어내고 있다. 이와 같이 문명의 이기들은 인간에게 편리와 안락을 주는 듯하지만, 이제는 역으로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인간의 삶의 전반에 심각한 불안과 공포를 초장하고 있다.

세계적인 행동주의 철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그의 저서 <엔트로피>에서 "인간의 '영생불멸의 소망' 이어말로 서양 세계에서의 기술의 원동력이다"라고 자세히 밝힌바 있다. 그런데 영동하게도

인간은 기술을 사용하여 자연과 자신과의 사이에 "또 다른 유구한 자연"을 만들어 내어, 점점 자신의 본성이 원하는 것과는 다른 이미지대로 유사한 자연을 만들어내는 작업에 열중하게 된다고 그는 보았다. 과학적 행위는 물질적 풍요와 생활의 편리함을 주는 듯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인간을 점점 비(非)인간적, 비 도덕적, 비 생명적 존재로 둔갑시키고 있다. 이처럼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자의식(가이假我)은 한편으로는 영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본향에 귀환을 유체적 쾌락과 물질적 풍요를 탐닉하는 양방향으로 내몰고 있다.

과학적 행위에 의한 물질적 풍요와 안락함 속에서 인간은 영원히 만족할 수 없고, 점점 더 참다운 인간성과 지구적 자연생태계를 파괴와 멸망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제레미 리프킨은 "물질주의적 인간은 점점 더 커지는 불행 앞에서 스스로 돈을 집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충분하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굳게 믿으며 물질주의적 이익 추구에 박차를 가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하였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쾌락의 쳃바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 쾌락의 환상에 빠질 때마다 사람들은 점점 불행해지며 탈출구가 없는 중독의 악순환에 빠져든다는 것이다. 과학적 행위에 의한 삶의 의미추구와 행복 추구는 이처럼 커다란 문제를 야기한다.*

김주호 기자